
2017년 3/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2017년 3/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 보고서

I. 조사 개요

- **목 적** : 경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회원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대 상** : 경주지역 제조업체 60개사
- **기 간** : 2017년 5월 23일 ~ 2017년 5월 31일 (휴일제외 7일간)
- **조사 내용**
 1. 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17년도 3/4분기 전망치 및 2017년도 2/4분기 실적치 (체감경기, 매출액, 설비투자, 자금 조달여건)
 2. 2017년 2/4분기와 3/4분기의 정책적 환경 비교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1. 분기별로 조사대상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
 2.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 수} - \text{악화표시 업체 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2017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 경주상의 관내 제조업체 조사 결과, 경기전망지수 (BSI) '67'
'74' (17년 2분기) → '67' (17년 3분기) 로 전분기 대비 '7' 포인트 하락....
- 국내 전반적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거나 경주지역 기업체의 경우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기준치 100에 현저히 못미쳐...

I | 경주지역 경기전망

- 경주지역 제조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3/4분기 기업경기전망(BSI)**을 조사한 결과, 지역기업들이 느끼는 전망치는 「67」로 전분기(2/4분기) 「74」과 비교하여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BSI 기준치 10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새정부 출범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에서 지난 19일 소형SUV 신차종의 본격적인 생산과 글로벌 론칭 및 사전계약 실시로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철강 산업은 중국의 철강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국산 철강재 수요가 증가하고 주요 철강재 판매단가 상승으로 점차 경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경주지역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부품 업체의 경우 연휴 등으로 인한 조업 일수 감소와 자동차의 생산설비 전환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철강업은 철근 수요 증가, 자동차용 강판공장 신규 가동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조선업의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인 자동차 및 철강 제조업의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거나 계속된 경기 불황의 여파로 경주지역의 협력업체들은 아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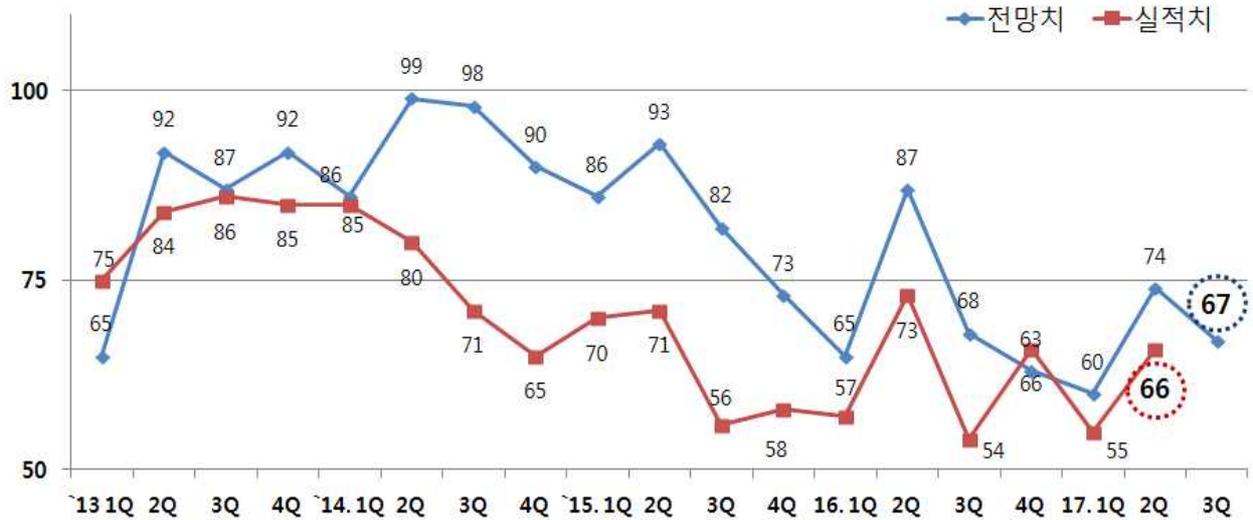


표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구분 \ BSI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전망치	65	92	87	92	86	99	98	90	86	93	82	73	65	87	68	63	60	74	67
실적치	75	84	86	85	85	80	71	65	70	71	56	58	57	73	54	66	55	66	

그림 2 '17년 2/4분기 전망 대비 '17년 3/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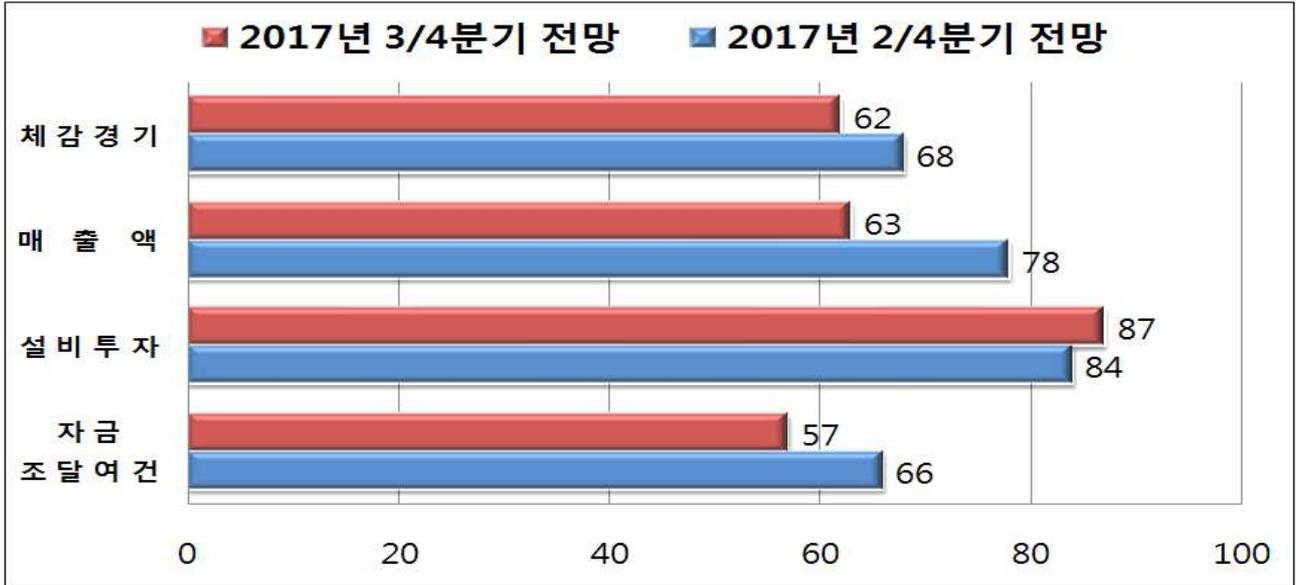


표 2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기간	2015								2016								2017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체감경기	74	64	90	63	88	47	74	39	61	33	79	52	50	40	52	76	60	42	68	50	62	
매출액	90	67	95	67	82	40	67	56	63	42	81	61	53	46	64	82	62	44	78	50	63	
설비투자	108	98	103	95	98	96	93	85	81	92	106	108	94	100	87	102	84	80	84	103	87	
자금조달여건																70	94	54	66	62	57	
영업이익	83	55	88	63	73	49	57	51	54	40	73	50	53	44	60							

근로자 채용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질문 조사결과

1) “귀사 근로자의 정규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100% 정규직	42	70%
99% 정규직	2	3.3%
95% 정규직	5	8.3%
94% 정규직	2	3.3%
93% 정규직	1	1.7%
90% 정규직	3	5.0%
85% 정규직	1	1.7%
83% 정규직	1	1.7%
80% 정규직	1	1.7%
40% 정규직	2	3.3%
합 계	60	100%

100% 정규직(70%), 95% 정규직(8.3%), 90% 정규직(5%), 99% 정규직(3.3%), 94% 정규직(3.3%), 40% 정규직(3.3%), 93% 정규직(1.7%), 85% 정규직(1.7%), 83% 정규직(1.7%), 80% 정규직(1.7%)순으로 나타났다.

2) “귀사 근로자의 비정규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계약직	13	68.4%
파견직	5	26.3%
아르바이트	1	5.2%
합 계	19	100%

계약직(68.4%), 파견직(26.3%), 아르바이트(5.2%), 순으로 나타났다.

3 “올 해 하반기 귀사의 신규채용 정원은 회사 총 정원의 몇 %정도입니까?”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20%	1	2.6%
15%	1	2.6%
11%	1	2.6%
10%	15	39.5%
7%	1	2.6%
6%	1	2.6%
5%	9	23.7%
3%	2	5.3%
2%	4	10.5%
1%	3	7.9%
합 계	38	100%

10% (39.5%), 5% (23.7%), 2% (10.5%), 1% (7.9%), 3% (5.3%), 20% (2.6%), 15% (2.6%), 11% (2.6%), 7% (2.6%), 6% (2.6%), 순으로 나타났다.

4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귀사의 채용 규모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동일함	27	56.3%
감소	11	22.9%
증가	10	20.8%
합 계	48	100%

동일함(56.3%), 감소(22.9%), 증가(20.8%), 순으로 나타났다.

5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새로 채용하는 구성원의 직무는 어떻게 됩니까?”

[복수응답]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생산기술직	30	45.5%
사무직	19	28.8%
연구개발직	8	12.1%
영업직	3	4.5%
기타	6	9.1%
합 계	66	100%

생산기술직(45.5%), 사무직(28.8%), 연구개발직(12.1%), 기타(9.1%), 영업직(4.5%)순으로 나타났다.

* 포함

6 “귀사에 현재 비정규직이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전환계획 없음	14	53.8%
비정규직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	8	30.8%
전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4	15.4%
합 계	26	100%

전환계획 없음(53.8%), 비정규직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30.8%), 전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15.4%)순으로 나타났다.

7 “(2017년 현재 최저임금 6,470원 기준)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적정한 수준이므로 유지해야 한다	34	56.7%
낮은 수준이므로 인상해야 한다	18	30%
높은 수준이므로 낮춰야한다	8	13.3%
합 계	60	100%

적정한 수준이므로 유지해야 한다(56.7%), 낮은 수준이므로 인상해야 한다(30%), 높은 수준이므로 낮춰야 한다(13.3%)순으로 나타났다.

8 “새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습니다. 1만원 달성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2022년 경	17	28.3%
2021년 경	2	3.3%
2020년 경	13	21.7%
2019년 경	5	8.3%
2018년 경	2	3.3%
1만원은 과도함	21	35%
합 계	60	99.9%

1만원은 과도함(35%), 2022년 경(28.3%), 2020년 경(21.7%), 2019년 경(8.3%), 2021년 경(3.3%), 2018년 경(3.3%)순으로 나타났다.

< >